

보도일시 (인터넷) 2024. 8. 27.(화) 11:00,
(지면) 2024. 8. 28.(수) 조간

배포 2024. 8. 27.(화) 06:00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 해수부, 간담회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업체 금융 지원방안 논의 및 업계 의견수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8월 28일(수) 14시, 서울 해운빌딩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친환경 선박연료 관련 해운사, 화주, 공급처, 유관기관 및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 (해운사) HMM, 에이치라인해운, 한국머스크 등 (공급처) SK가스, 롯데정밀화학,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등 (유관기관)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대학교 등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박연료 공급업체의 친환경화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에 대한 한국해양대학교의 발제, ▲국내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계획에 대한 업계의 소개, ▲올해 말 1조 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비롯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업체 금융 지원 방안(안)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주제 관련 토론과 업계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나, 그에 비해 국내·외 공급망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글로벌 탈탄소화 가속화에 따라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친환경 선박연료 업계의 성장과 세계시장 선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임지현 (044-200-571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선하 (044-200-5716) |
| 담당 부서 |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최문건 (044-200-577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상현 (044-200-5773) |